



협회 동정



<모기 아끼라씨의 초청 강연>



<역대임원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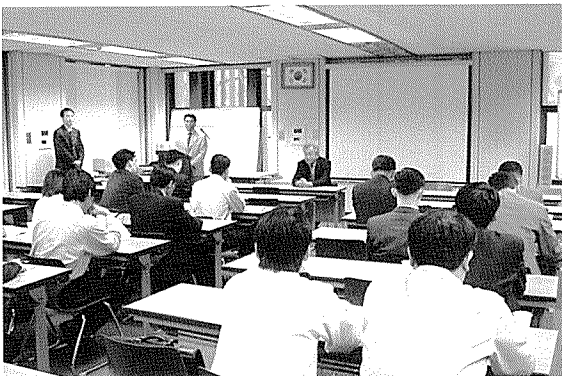
목적으로 발족한 우리 협회가 동종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였을 뿐 아니라 괄목할 만한 큰 성장을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역대 임원들의 의지를 이어받아 지속적으로 서비스·진흥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직 임원들은 "성장된 협회 모습에 가슴이 뿌듯하다"고 말하고, 임용규 전 회장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협회」라는 주제 강연을 통하여 "채 회장과 전임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그간의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하고 괄목할 만한 도약을 하고 있다"며 "현 임직원이 앞으로도 협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해 주길 당부하고, 특히 일반인에 대한 바른 방사선이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채 회장은 우리 협회가 초창기로부터 국제협력을 통하여 선진 RI 기술개발 및 기관운영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큰 일본동위원소협회의 전 총무부장 모기 아끼라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아끼라씨로부터 30분간 「현재 일본의 동위원소 등 이용현황」에 관한 주제강연을 청취하였다.

원자력안전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우리협회는 5월 18일(수) 협회 회의실에서 원자력 안전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진행에 앞서 정중혁 상근부회장은 원자력 안전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회원사의 많은 참여를 통하여 원자력안전규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의 활성화를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원자력법령의 인허가 제도상의 운영측면에서 사용자가 애로를 느끼고 있는 허가

량, 방사선안전보고서 및 안전관리규정 등 9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협회는 금번 논의된 결과를 정리하여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KISTEP)의 정책연구과제에 동의건을 제출하는 한편, 원자력법령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방사선종사자정보중앙등록센터 시스템 시범운영 개시

우리 협회는 방사선종사자의 방사선방호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RIS(Radiation workers Information System)를 개발하여 오는 6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RIS는 중앙등록센터 구축 1차 연도(2004년 8월~2005년 5월) 사업으로 개발된 방사선종사자 방사선

방호정보(피폭선량, 건강검진 및 교육훈련) 통합관리 전문시스템이다. 금년 2차 연도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성되면 동 시스템(www.ris.ri.or.kr)은 온라인상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정보의 접근과 관리가 용이해져 방사선종사자의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IS 어플리케이션 구성>



협회 임직원 춘계 체육대회 개최



우리 협회는 5월 20일(금) 서울 근교 청계산에서 2005년도 춘계 체육행사를 개최하였다.

협회 임직원간 체력증진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실시된 이번 춘계 체육대회는 협회 채화목 회장과 정중혁 부회장을 비롯,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모처럼 사무공간을 벗어나 등산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임직원간의 협력과 단합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유관기관 동정

과학기술부

원자력발전소 통합안전규제검사 시행

- 원전 사고·고장 발생 및 중복규제 등 문제점 해소 -

과학기술부는(부총리 겸 장관 및 明) 원자력발전소 시설에 대한 안전규제검사 업무를 통합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업자원부에서 수행하던 원자력발전소의 2차계통시설에 대한 안전규제업무(정기검사, 사용전검사)도 앞으로는 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하게 된다.

※ 1차계통 : 원자로 및 방사성관련시설

2차계통 : 터빈 및 발전기 등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규제업무는 1차계통은 과학기술부에서, 2차계통은 산업자원부에서 수행하는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금번에 안전규제업무를 통합하게 된 것이다. 원전은 1, 2차계통이 연계되어 있고 사고·고장 발생시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종합적인 안전성 확인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1, 2차계통에 대한 통합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원전의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위해 산업자원부가 수행하는 2차계통 안전규제업무를 과기부로 이관토록 결정한 바 있다.(제43차 국정과제회의, '04. 5. 20) 그 동안 통합안전규제체제 구축을 위해 산업자원부와 업무이관에 대한 합의를 거쳐 관련법령 등을 개정하는 등 제반준비를 완료하였다.

이번 통합안전규제는 '05년 5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영광원전 5호기 정기검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통합안전규제 시행과 병행하여 검사대상·방법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품질보증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대상계통·설비에 대해 단순 점검하는 방법에서 종합적인 계통·기능 중심으로 검사하며, 고장유발이 잦은 취약설비를 중점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앞으로 원전 1, 2차계통에 대한 안전규제 체제의 통합으로 지금까지 안전규제의 이원화로 인한 사고·고장의 발생과 중복규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